

6월 8~12일 방명록 과제

1팀 후기

[권희정]

처음에는 모델1 방식이지만 게시판을 만드는 것을 배웠고 MVC 패턴도 배웠기 때문에 금방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직접 해본 결과 모델1 방식으로 했던 것을 MVC로 바꾸는 과정에서 모델, 컨트롤러, 뷰의 역할을 나누는 것 자체는 이해했으나

그렇게 나뉘진 각 페이지끼리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이 어려웠다.

JSP의 스크립트 영역을 거의 쓰지 않고 필요한 로직은 전부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리다이렉트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리퀘스트 객체가 살아있는지,

GET방식에서 꼭 넘겨줘야 하는 값은 무엇인지,

검색 기능에서 검색값(한글)의 인코딩과 디코딩을 어디서 해야하는지 같은 것들이 어려웠고 고민이 되었다.

이를 위해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을 반복해서 확인했던 것은 많은 공부가 되었다.

게시판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로직대로 만들었지만, 직접 코드를 한줄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했고 응용도 할 수 있었다.

혼자서 코드를 읽는 것은 힘들지만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었다.

특히 GET 방식을 사용하면서 한글을 디코딩만 하고 인코딩은 하지 않아서 계속 에러가 발생했는데

인코딩과 디코딩의 개념을 잘 몰라서 처음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몇 시간이나 다른 부분을 읽고 수정하고 고민했다.

그러다가 디코딩이 있으면 어딘가에는 인코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디코딩과 인코딩의 개념을 확실하게 찾아본 후

코드를 수정해서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는 뿌듯함을 느꼈다.

남들이 보기엔 간단한 것을 오래 걸려 깨달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온전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기뻐다.

그 외에 어려웠던 부분은 CSS를 조작하는 일이었다.

JSP 파일에 대략적인 구조를 짜두고 CSS에서 배치를 하는데, 정렬 하나만 하는 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CSS는 언어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가며 이해해가며 바닥부터 공부해야 했다.

그래도 원하는 배치 하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명령어를 이해하는 과정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

무슨 명령어인지 모르면서 쓰기보다 이해하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작지만 내 실력으로 쌓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디자인 감각은 단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예쁘게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좋은 팀원들을 만나 팀원들과 협업하는 과정도 즐거웠다.

모델, 컨트롤러, 뷰를 각각 연관있는 것들로 나누어 각자 골고루 맡아서 코드를 작성했는데 다들 의욕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잘 만들 수 있었다.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못 찾았던 에러를 찾아주기도 하고 어려우면 서로 모여서 작성해보기도 하는 과정이 좋았다.

평소에는 이렇게 함께 코드를 짜기보단 혼자서 고민하는 편이라, 협업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된 것 같다.

[강별희]

○ 이번 실습으로 배운 것

1.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dao**를 구성하고 **dto**클래스를 만들고 서블릿 파일을 만들고 **jsp**를 생성하는 등 각각의 클래스나 파일을 생성해서 실습할 때에는 해당하는 파일의 기능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 파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잘 잡히지 않았었다. 이번 실습으로 **MVC** 패턴을 적극적으로 적용해보면서 비로소 서블릿매핑을 왜 하는지, 모델(**java**), 뷰(**jsp**), 컨트롤러(**java**)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request** 객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 흐름을 알게 되었다. 자바, 오라클, **JDBC**, **Web(html,css,jsp)**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전까지는 자바 따로, 오라클 따로, **JDBC**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다 활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내가 할 프로그래밍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 **MVC** 패턴으로 진행을 하니 역할 분담이 한결 수월해진 것 같다. 전에는 **a**를 진행하고 나서야 **b**를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차례가 오기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실습에서는 누군가는 **dao**와 **dto**를 구성하고 동시에 또 누군가는 컨트롤러와 모델을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뷰페이지를 작업하는 등 동시에 진행이 가능했다는게 큰 변화라고 느꼈다.

○ 기억에 남는 것

수정버튼을 누르면 **value** 에 있는 **num** 값을 넘겨주어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처리를 하려고 했다.

데이터를 수정하는 로직을 처리하는 곳에서 **num** 값을 **request**로 받아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불러와지지 않았다.

테스트로 출력해보면 값이 **null** 이었다. 혹시 **value**에 값을 부여할 때 혹시 동적이어서 그런가 아예 정적으로 **value** 값을 넣어놓고

request.getParameter를 해보아도 **null** 이었다. 그래서 아예 상관없는 태그문을 새로 만들어 테스트 해보았는데 그건 또 잘 불러와져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하나 때문에 거의 3시간을 고민했던것 같다. 결론을 말하자면 **value** 에 **num** 값을 부여한 태그의 속성에

disable = disabled 을 같이 부여한 것이 문제였다. **disable** 을 썼던 이유는 수정폼에서 다른 것들은 다 수정이 가능하지만 **num** 값은

수정할 수 없게, 읽을수만 있게 하려고 부여했던것이었는데 **disable = disabled** 를 부여한 태그는 **name** 의 **value** 값이 **request**에

담기지 않는것이였다. 혹시나 싶어서 **disable = disabled** 을 지우고 실행했더니 제대로 수신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 속성때문에

몇 시간을 고민한것이 허무하기도 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readonly**를

사용했어야 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태그의 속성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완벽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틴틴이 태그들과 속성을 공부해야겠다.

[문상훈]

이번 과제는 간단한 방명록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도구들을 학습하고 활용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오라클을 사용했습니다. 오라클은 간단한 방명록을 저장하고 관리하기에 적합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사용자가 방명록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는데, 이 부분은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MVC** 디자인 패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습했던 방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수정사항 및 보완사항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계속 생겨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문제 상황들을 협력하여 해결해나가면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토의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팀원들과의 원활한 협업 능력이 이번 과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과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성취감을 주었고, 실제 사용자들에게도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연수]

처음에는 네시간 안에 끝낼 작은 과제의 규모였다. 하지만 우리조 포함 다른조들 모두 규모가 커지게 되어 4일동안 과제를 하게되었다.

맨 처음 우리조는 팀장 지시 하에 **view** 페이지 파트, 컨트롤러와 모델 파트, **db**파트로 나뉘어졌다.

db부분은 기능을 하나씩 추가할 때 마다 컬럼이 추가되었다. 단순히 컬럼만 추가하면 되었기에 별 탈 없이 잘 진행되었지만

저번 프로젝트처럼 테이블이 많고 서로 얽혀있는 관계가 복잡했다면 요번에도 진행 중 **db**를 만지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css** 는 학교에서도 **table**로만 **css** 를 다뤄봤었기에 **div** 로 **css** 를 적용하기가 많이 까다로웠다. **css** 를 좀 더 다뤄봐야겠다고 느꼈다.

또, 팀원으로서 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알아보며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과제였다.

[최하경]

방명록 만들기 과제를 받고나서 주제를 정하면서부터 팀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팀원들의 열의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첫 팀장직을 맡고 나서 한달동안은 큼직한 과제나 세미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별다른 일 없이 바로 파이널 프로젝트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부담스러웠던 팀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 후련하기도 했지만, 사실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 방명록 만들기라는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팀장으로서 팀 내부의 일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방명록 주제는 싸이월드 방명록으로 정해서 벤치마킹 하였고, 만들어야 할 물리적 파일 목록을 정리하면서 팀원들과 할 일을 분담하였다. MVC를 적용하기 때문에 파일 수 가 많았고, 처음에는 DTO, DAO와 데이터베이스, sql 쿼리문을 맡아서 각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 다음에는 Controller와 Model을 맡은 팀원들과 코드를 함께 보며 진행을 이해하였고, 방명록을 작성할 때 미니미(아바타)도 선택하여 출력하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강사님과 함께 실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VC 패턴을 익숙하게 읽는 것이 어려웠지만, 별희 언니와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뷰와 컨트롤러와 모델을 왔다갔다 하며 흐름을 완벽히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희정언니가 css를 거의 맡아서 해준 덕분에 귀여운 ui가 나올 수 있었다. 나는 배경음악과 타이틀을 추가하면서 화면을 꾸몄다.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진행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주말이 있었는데, 다들 집에서 열심히 코드를 보며 수정하고 다듬었다.

그리고 카톡으로 바로바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하며 다른 팀원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지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파일을 잘 정리해야 했고, 계속적으로 war파일로 주고받으며 업데이트를 하였다. 팀원들 모두 침착하게 자기 할일을 하고, 깔끔하게 자신의 상황과 결과를 말해준 덕분에 원활하게 팀 과제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회의록도 상훈오빠가 맡아서 작성해준 덕분에 회의록도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첫 팀장을 해보았는데, 좋은 팀원들 덕분에 어려움 없이 팀플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면서도 팀장의 말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 주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에러가 나거나 어려운 부분은 다 함께 도와가며 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MVC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포워드와 리다이렉트의 차이를 통해서 오류를 고친 것도 흥미로웠다.